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6> 참선의 세 가지 요건

화두 참선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한 점 의심도 없이 믿고서 화두와 하나가 되는 선정 속에 들어가야 한다. 조그마한 틈도 없이 끊임없이 화두를 참구해야 하는 이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선하는 문중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화두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은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알고 보면 온갖 의심이 오직 하나의 의심일 뿐이다. 하나의 의심이 해결되면 온갖 의심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선가귀감> 14장에서는 <선요>의 내용을 빌려와 화두를 공부할 때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인 큰 믿음, 큰 분심, 큰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參禪須具三要 一有大信根 二有大憤志 三有大疑情 苟闕其一 如折足之鼎 終成廢器

참선 공부에는 모름지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큰 믿음이요 둘째는 큰 분심이요 셋째는 큰 의심이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다리 부러진 삼발이 술과 같아서 앉만 열심히 공부해 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나오신 뜻은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 나오도록 하는 데 있으니, 이를 일대사건(一大事因緣)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중생은 먼저 생사의 뿌리와 부처님의 세상을 알아야만 한다. 선종에서 '수행자는 선지식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이다.

선지식을 만나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스승에 대한 믿음이 깊어야 한다. 스승을 믿는 마음과 그 분의 가르침은 연결되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한

다. <기신론>에서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온갖 법의 근본을 믿는 것이니, 진여(眞如)인 깨달음을 즐겨 생각하려는 것이다. 둘째 부처님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부처님을 가까이 받들어 모시면서 착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구하려는 것이다. 셋째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는 것이니, 늘 모든 보살행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넷째는 스님들은 바른 수행을 함으

믿음 분심 의심 세 요건 갖추야

하나라도 빠지면 쓸모없는 깨달음

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 줄 것을 믿는 것이니, 늘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을 가까이 가까이 하고 싫다운 행을 배우라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탁한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수정주(水精珠)처럼 중생의 온갖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다. <보살본업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품안에서 믿음을 근본으로 삼아라." 하였고, <지도론>에서 "큰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법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였으며,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道)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였다. 중생에게 생사를 해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정부의 뜻을 세우 열심히 화두를 쟁겨야 한다.

참선 공부 제대로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요건은 스승과 화두에 대한 가르침에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수미산과 같이

서 공부하는 길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둘째 요건은 화두를 타파하고자 하는 큰 원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 원력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바로 두 동강내리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를 마쳐야 하겠다는 큰 분심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는 사악한 일을 마구 폭로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의심, 곧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

화두를 공부할 때 이 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안에 공부를 이룰 수 있다. 화두가 독 안에 든 자라와 같아서 있어버릴 염려가 없어 화두와 하나가 된다. 반대로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삼발이 술과 같아서 끝내 어떤 깨달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일에는 믿음이 근본이다'라고 하였고, <중도가>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으며, <몽산법어>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병'이라 하고 또 '크게 의심하는 데서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선이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요>의 저자 고봉(1238-1295) 스님도 계속으로 말한다.

急水灘頭 泊小舟 切須牢把 著繩頭 纛然纏斷 難迴避 直得通身 血送流 萬法歸一 一何歸 只真惺惺 著意疑 疑到情忘 心絕處 金烏夜半 徹天飛 거센 물살 어슬무서 멈추려 하면 배의 닻줄 단단하게 묶어놓아라 별안간 줄 끊어져 뒤집히지 않으면 물에서 피가 터져 솟아 나오리. 온갖 법이 한 법으로 모아지는데 이 한 법은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깨어 있는 의심만이 오직 귀할 뿐 마음 같이 끊어진 곳 도달해보면 밝은 태양 한바탕에 빛을 발하리.

■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재미있는 삶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연꽃

'이 세상 살아가길 허공처럼 하라. 저 연꽃이 진흙물에 때 묻지 않듯 그렇게 집착 없이 살아가거라.' <석문의범> 연꽃이 불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비록 중생들이 온갖 더러운 환경 속에 살더라도 마침내는 부처님

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사실 연꽃은 불교 훨씬 이전에 인도신화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만큼 불교 등의 종교에 인연이 깊은 게지요.

연꽃이 갖는 불교적 의미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성화(聖花)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성(佛性)'이라고 합니다. 더럽든 깨끗하든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도 그렇다는 뜻이죠.

때문에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자 부처님의 모습이며 나 자신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37강 불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쩌다, 명동의 한 진보적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유교이지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열어가 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맞보기 사설부터 늘어놓자면, 주제는 신학이었습니다.

신에게 얼굴이 있을까

유교도,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신화의 일종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태극(太極)이나 리(理)는 신에 해당합니다. 주자는 "리가 있어 천지가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부여했처럼 뒤집어 낸 것이 리라는 것인데, 리는 이데일리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지배 절대자입니다. 여기서 리나 태극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맞먹는 위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신의 얼굴입니다. 기독교는 이 얼굴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해, 유교는 천만에, 그 신은 얼굴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의 주인은 사람형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교는 신이 완전하기 때문

에, '유한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이지요.

저도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금껏 인간중심적인 착각, 혹은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잠, 불교처럼 모든 사람이 신성을 갖춘 여래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만... 이 얘기는 다음 시간, <금강경> 5장에서 다시 떠들기로 하겠습니다.

민중화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으니, 세상은 변화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참, 불교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은 미리 짚어두어야겠습니다. 불교는 이 세계의 고통과 윤회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런 회론(回論)에 대해서는 붓다 초기부터 무관심했고, 나아가 깨리던 바였습니다. 어떤 궁극 많은 학생 하나가 "세상은 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시간은 무한하냐,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를 물었을 때, 붓다는 예의 그 특화살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 대답은 말하자면, "깨부, 그렇게 한가한 세상이라. 너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

서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사유도 여기 지금의 삶을 기약하고 방향 잡는 실존적 선택에 크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자 따로 있습니다. 강의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 끝에 앞에 앉은, 강단 있는 풍모의 노인 분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주도해온 것은 기독교였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이룩해 온 근본 공은 기독교에 돌려야 한

도그마를 권위적으로 설파하는 역사신학 보다, 개인의 영성과 각성에 주력하는 영성신학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혁명으로 여는 사회변화

시절 인연이란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개인적이고 유교는 일상적입니다. 둘 다 거시적 사회 변화를 집단적으로 주도하는 데는 서투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공히, '개인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어떤 행동도 योग과 타락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

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불교를 배우고, 접하는 것이 결코 낯았거나,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21세기 참담에 있는, 가장 새롭고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불교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해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우리는 선우>에서 '제가 만난 불교'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사회

대한 역할이 어디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크고 화려해 보이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후도 그렇지만 삶에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삶의 기술(ars vitae),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을 대하는 근본태도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그 성숙의 향기는 1차적 삶의 공간인 가족과 일상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로 번져나가 "세계를 꽃 한 송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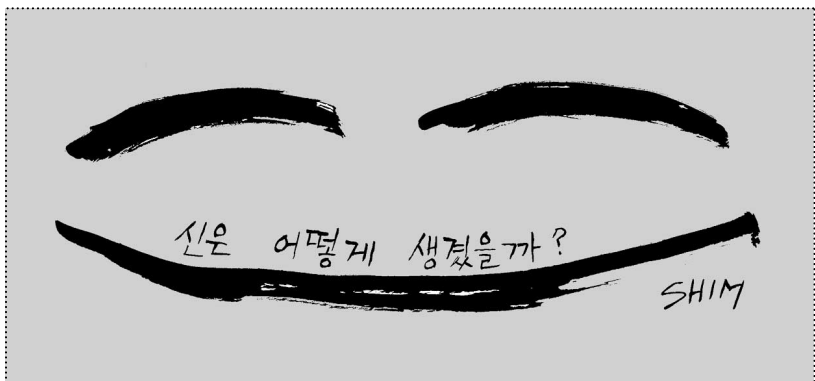
일의 작고 큼에 따라 원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수 정곡 잘 따르는 손이 수제비도 잘 뜬다"고 했던가요. 만법귀일(萬法歸一), 변하는 것은 관계의 양상이고, 규모이지, 근본은 그 관계의 태도 하나로 귀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치권에 참가하지 않는 거요?" "집안이 화목하고, 이웃과 잘 사귀면 그게 정치지, 꼭 선거권에 나가야만 정치겠소?"

불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성도 중요하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신뢰'와 '믿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듯, 불교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알고는 있어야하리, 너무 매도 분위기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사찰의 운용이나 종단의 기획력, 불교의 사회적 발언권 등에 대해 아쉬운 점이 어디 한 둘이었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마음과 태도 속에 살아있는 불교를 도타이 북돋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고 꽃이 화려한 법입니다. 그것이 돈교의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구체적 관계 속의 불교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제 넘었습니다. 함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거판에 나가야만 정치인가



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불교는 개인의 자각을 이루어 할 전부로 보고, 유교는 연필처럼 말하듯이 수신제까지국평천하, 즉 개인의 인격과 덕성의 성취 없이는 가정의 평화에서, 사회 개혁까지도 도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순진한 비사회과학적 발상이라고 매도당해왔으나, 21세기에는 그것이 인정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

적 책임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불교의 힘으로 홀로 핏덩이 4남매를 키웠고, 집을 팔아 나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회적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 인고의 세월을 불교가 있어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만일 불교가 아니었다면 20년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위